"수행 함께해야 참된 우란분절"

미타선원 우란분절 금강경 산림법회

수행을 통해 우란분절의 참된 뜻을 되새기는 법회가 열린다.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종호)은 '우란분절(백중) 기도 금강경 산림법회'를 진행한다.

우란분절은 목련존자가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데서 유래한다.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영가가 극락왕생해 우란분절이 시작됐다. 미타선원은 이러한 우란분절을 맞아 수행과 법문을 집중 강조한다.

7월 16일~9월 3일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극락보전에서 열리는 법회는 사시불공으로 시작해 금강경 법문에 이어 천도재로 진행된다. 회향은 백중인 9월 5일이며 회향 법회로 마무리 된다.

미타선원은 매년 우란분절을 맞아 금강경 독송 및 사경으로 수행을 독려한다. 창건 후 18년 동안 빠짐없이 진행해 수행의 의미를 전달하는 특별한 우란분절로 자리 잡았다. 이번 해는 특히 전국에서 찾은 스님들의 특별 법석으로 다채로운 금강경 법문을 들을 수 있다.

원로 의원인 지하 스님과 전국 선원수좌회 의장인 월암 스님의 '수행으로 바라본 금강경'을 마주할 수 있다. 아울러 도심 포교 활동으로 유명한 금강 · 마가 · 도문 · 광전 스님은 금강경의 안목을 쉽고 편한 언어로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금강 스님은 미황사 음악회와 템플스테이 '참사람의 향기' 등에서 얻은 힐링 메시지를 대중에게 풀어 놓는다. 이날 금강 스님은 음악가를 초대해 명상 음악도 선사한다. 출연 가수는 미황사 산사음악회에 다년간 함께해 실력을 인정받은 명상 음악가들이다.


용두산 미타선원은 7월 16일을 시작으로 우란분절 기도 금강경 산림법회를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극락보전에서 봉행한다. 이번 산림법회서 법문을 맡은 월암 스님이 지난해 4월 개산법회에서 법문하는 모습.

7월 16일 입재, 매주 일 법석
지하 · 하림 · 월암 스님 등 법사
창건 후 18년간 빠짐없이 열어
선사 법문서 대중 힐링 자리로

세부 일정 및 법사는 △입재 법문 지하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7월 23일 하림 스님(행복공감 평생교육원장) △7월 30일 월암 스님(한산사 용성선원장) △8월 6일 금강 스님(미황사 주지) △8월 13일 도문 스님(통도사 총무국장, 前 조계사 주지) △8월 20일 종호 스님(미타선원 주지) △8월 27일 마가 스님(자비명상 이사장) △9월 3일 광전 스님(조계종 원로회의 사무처장) 등이 매주 법석을 연다. 회향일인 9월 5일에는 주지 종호 스님이 법문한다.

미타선원은 "다채로운 법석을 통해 초심자부터 오랫동안 수행해온 불자들까지 동참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했다"며 "아울러 도심 포교지인 미타선원과 어울리는 자리로 일반인에게도 힐링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법회가 일요일인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법회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목련존자의 효심을 새기며 가족들이 함께 동참하는 시간으로 원찰에서 법회를 봉행한 이후에도 특별히 금강경의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산림법회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매일 금강경 독송과 사경으로 수행에 동참하며 사경집은 회향날 천도재 위패와 함께 소각 회향한다. 이는 금강경 법문을 듣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미가 함께 담겼다.

미타선원은 "우란분절을 맞아 지극한 믿음과 정성으로 효도를 실천하고자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 · 친족 및 수자령(유산된 태아의 영혼) 영가 천도재를 올리고 있다"며 "영가들이 금강경 법문을 듣고 극락왕생을 천도하는 뜻 깊은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행과 공양 공덕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어떤 악업의 중생도 구제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조계종 소의 경전인 금강경을 주제로 산림법회를 연다"고 취지도 전했다. 하성미 기자

신나는 여름 '마음 놀이터'서 놀자!

방학 맞아 부산지역 곳곳서 불교캠프 열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어린이 법회에 참석한 아이들이 촛불재(마음 on)에 참여하고 있다.

신나는 여름방학, 아이들에게 불교캠프를 통해 행복 메시지를 전하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은 7월 28~30일 부산지원 일대에서 어린이 여름캠프 '마음놀이터'를 개최한다.

학력 중심 사회에서 아이들은 학습을 강요당한다. 학습결과로 평가당하며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주도적인 삶에서 점점 멀어진다. 또한 관계 맺는 법을 바르게 익히지 못한다. 이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마련한 마음놀이터는 현대 아이들이 갖는 부작용을 치료하고 행복한 삶을 선물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마음놀이터를 △나는 주인공이다 △주인공이 한다 △모두는 주인공(나)이다 총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나는 주인공이다'는 레고 퍼즐, 비즈 만들기, 찰흙, 양초, 염주 나무단청 등 다양한 도구로 자신을 직접 만들고 자아상을 설명하며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아울러 스님과 도반들의 피드백으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 '스마일 Today'를 진행해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도록 연습한다. '웃어야 웃는 일이 생긴다'는 말처럼 행복한 자신을 미리 세팅해 아침을 열도록 지도한다.

'주인공이 한다'는 주도적인 삶의 즐거움을 일깨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도량 곳곳에 코스별로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나에게로의 여행'을 떠나본다. 나를 바라보고, 선물을 해주고, 맞는 음식을 만들어준다. 자신과 콤비가 되는 여행으로 주체적이면서도 자유를 맛보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디자인 Tomorrow' 시간에는 스스로 이끌어가는 내일을 마음으로 그리면서 자기 전 직접 하루를 미리 설계해 본다.

'모두는 주인공(나)이다'에서는 나와 모두를 밝히는 촛불재, 미션 미로 게임, 마법의 통로, 장기자랑 대회 등 참가자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토닥토닥 Today'는 잠들기 전 자신의 하루에 보내는 칭찬과 위로의 시간으로 모든 대상에게 감사를 전달하고 행복을 체험하도록 돕는다.

캠프 기간 동안 한마음선원부산지원은 마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공부 UP 자신감 UP 이야기 한자' 시간도 갖는다. 어린이 캠프 담당 혜벽 스님은 아이들에게 행복의 원리와 비법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한자 시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혜벽 스님은 "행복은 유능함과 자유 그리고 관계 맺기 속에서 드러난다"며 "행복을 찾아가는 마음공부를 위해 이야기 한자와 체험 활동을 연결해 자신의 뿌리를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관심을 독려했다. 캠프 대상은 초등학생이며 참가비는 3만원이다. (051)403-7077

홍법사(주지 심산)는 어린이여름불교학교 '만다라에 풍덩'을 7월 28~30일 홍법사 경내 일대에서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과자만다라 및 자연물만다라, 창작만다라 그리고 만다라 명상 등 만다라를 주제로 다채로운 시간이 마련된다. 이어 찬불 율동 및 교리수업, 물놀이, 전래놀이, 게임 등으로 즐거움을 더한다. 대상은 유치부 7세~초등학생이며 모집인원은 60명이다. 참가비는 7만원. (051)508-0345

진흥사(주지 정법)는 어린이 불교캠프를 처음으로 연다. 진흥사 어린이 여름캠프 '나눔이 주는 행복한 세상'은 7월 15~16일 진흥사 경내에서 열린다. 프로그램은 기초 습의 교육, 발우공양, 내 마음 팝아트 등이 마련되며 캠프파이어 및 범어사 참배 워터파크 물놀이도 진행된다. 대상은 초등학생이며 선착순 60명만 접수 받는다. 참가비 3만원.

한편 진흥사는 2015년 9월에 어린이 법회를 창단하고 올해 3월에는 반야청소년회를 창립했다. 청년회가 주축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등 어린이 포교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051)365-0524 하성미 기자

부산 생명나눔, 시민대상 장기기증 캠페인

(사)생명나눔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 · 이하 생명나눔부산)는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전개했다.〈사진〉

생명나눔부산은 6월 30일~7월 1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 제1전시장 2A홀에서 열린 '메디부산 2017! 시민건강박람회'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했다. 기간 동안 122명의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생명나눔부산은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봉사해주신 봉사자들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한다"며 "장기이식만이 유일한 치료수단인 환우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용호복지관, 어르신들에 '삼계탕' 대접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이 뜨거운 여름 사랑의 삼계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발원한다.

용호복지관은 초복인 7월 12일과 중복 7월 21일 말복 8월 11일 3차례에 걸쳐 사랑의 삼계탕데이를 실시한다. 대상은 지역내 독거 및 결식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1300여명이다.

용호복지관은 "매년 따뜻한 후원으로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해 드릴 수 있었다"며 "이번 해는 특별히 1300여명에 이른다. 삼계탕에 재료 및 과일을 후원받고 있다"며 많은 관심을 독려했다. (051)628-6737~9 하성미 기자

세계 요가 수행자들 "한국불교 원더풀"

7월 2일 표충사서 템플스테이 체험 '눈길'

세계 요가 수행자들이 한국 호국불교를 대표하는 표충사에서 불교문화를 체험해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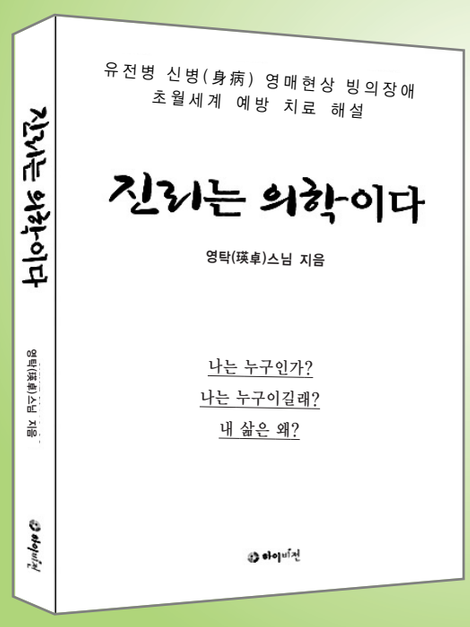
밀양 표충사(주지 법기)에 100여명의 외국인 요가 수행자들이 7월 2일 방문했다. 이들은 '2017 밀양 국제 요가테라피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요가인들로 '건강과 세계 평화를 위한 요가'라는 주제로 현대인의 질병 및 치유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팀이다. 행사에는 인도 비베까난다요가대학교 나겐드라 총장과 싸 비르 씽 칼사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 등 세계 7개국 최고 요가 전문가가 초청됐다. 요가 수행자들은 표충사에서 주지 스님과의 차담, 법고 체험, 박물관 및 사당을 둘러보며 표충사를 탐방했다. 이어 호국 승병을 체험하며 활쏘기 체험 및 병장기 등 다양한 템플 라이프를 체험했다.

표충사는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표충사를 방문해 뜻 깊었다"며 "표충사서 얻은 힐링 및 휴식으로 참된 건강을 전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055)352-1150 하성미 기자


100여명의 외국인 요가 수행자들이 7월 2일 밀양 표충사를 방문했다. 한 외국인이 호국승병 체험 활쏘기를 하며 즐거워 하고 있다.

진리는 의학이다!

천불사 영탁스님이 세계 최초로 중생제도 대원력 서원을 성취한
불설초월세계진여자성본원력방편보살도!
조상영가 왕생극락 시킬 수 있는 방편 대공개!



불설초월세계진여자성본원력방편보살도는
삼계사생육도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의
잠재의식 다겁다생의 업보를 해체 분리
파괴 소멸시켜 해탈하는 초월세계
우주진리법 입니다.

신병(身病), 영매현상, 빙의장애는
완치될 수 있고, 유전병도
예방 치료 됩니다.

전국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십시오.

값 15,000원 | 신국판 | 261쪽 | 하이비전

■ 문의 : 천불사 053)624-2272, 053)624-2275



고운사 템플스테이
여름수련회

수련회 일정

1 초등생 여름캠프 "고운 꿈을 향해 쏴라"
□ 기 간 : 7월 28일 ~ 30일(금, 토, 일)
□ 주요프로그램 : 108염주꿰기, 연꽃 등 만들기, 명상,레크레이션, 만들기 체험, 사찰음식체험 등
□ 참 가 비 : 8만원
□ 대 상 : 초등 3학년 ~ 6학년

2 중·고생 여름캠프 "고운 꿈을 향해 쏴라"
□ 기 간 : 8월 1일 ~ 3일(화, 수, 목)
□ 주요프로그램 : 108염주꿰기, 연꽃 등 만들기, 요가, 위파사나 명상, 숲속 명상, 사찰음식체험 등
□ 참 가 비 : 8만원

3 성인 수련회 "찰나에 알아차림과 쉼"
□ 기 간 : 8월 4일 ~ 6일(금, 토, 일)
□ 주요프로그램 : 요가, 위파사나 경행, 좌선, 숲 속 명상, 108염주 꿰기, 스님과의 대화, 사찰음식체험 등
□ 참 가 비 : 10만원

4 요가 및 위파사나 집중수행
□ 기 간 : 매월 셋째주 금, 토, 일) (7월 14 ~ 16일, 8월 18 ~ 20일)
□ 대 상 : 중 · 고생, 성인
□ 프로그램 : 요가 및 위파사나 집중수행
□ 참 가 비 : 9만원

참가문의 : 054-833-6933. www.gounsa.net